

#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205**

FEB 18 2022

**발간년월** 2022년 2월 18일(통권 제205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김종덕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유지원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 주요 동향

- 러시아 철도청, 컨테이너 운송량 4배 증대
- 러시아, 지능형 교통체계(ITS) 확대 도입
- 카자흐스탄-중국, 육로 운송 문제 장기화
- 중국과 북한, 화물 철도를 통한 무역 재개
- 국제기구·비정부기구, 북한 인도지원 무산

## 주요 통계

- 2021년 12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액체화물)
- 2021년 11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 2021년 11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 주요 동향



### 러시아 철도청, 컨테이너 운송량 4배 증대<sup>a)</sup>

#### ■ 2027년까지 컨테이너 운송량 최대 400만 TEU로

- 알렉세이 실로(Alexei Shilo) 러시아 철도청 부사장은 최근 2021년에 10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운송함에 따라 추가 운송량 확보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장기적으로 400만 TEU 컨테이너 화물 운송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또한 철도청 고위 경영진에 따르면, 본래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25년까지 목표 수치를 달성하고자 하였으나,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서는 러시아 국경검문소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중국간 국경 지역, 유럽행 타 국경지역 등을 동시에 개발해야 하는 문제 등 터미널에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이행 기간이 2027년까지 재조정 되었다고 설명함
-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컨테이너 부문 성장 잠재력은 인정하지만 화물 처리 인프라 및 터미널의 부족, 철도 화물 관련 행정 작업 문제 등으로 5년 내 목표치 달성은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음
- 특히, 전문가들은 컨테이너 운송량을 400만 TEU까지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베리아횡단철도(TSR)의 추가적인 화물 적재 용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 ■ 컨테이너 운송량 증가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 예측

- 2021년 컨테이너 운송에서는 역대 최대치인 650만 TEU(2020년 대비 12% 증가)에 도달했으며 이는 당초 2025년 목표로 계획한 수치에 근접함
- 중국~몽골 사이 국경 철도 검문소 및 극동지역 항만들을 통과하는 물동량은 기존의 주요 운송 루트인 카자흐스탄 경유 루트의 물동량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카자흐스탄의 도스틱(Dostyk) 및 알틴콜(Altynkol)을 통한 컨테이너 운송이 26% 증가할 때, 러시아 자바이칼스크(Zabaykalsk)를 통하는 운송은 68%, 부랴티야 공화국의 나우시키(Naushki)를 통한 운송은 3배 가량 증가했고, 극동 지역 항구를 통한 운송은 27배(20,700 TEU) 늘어났음
- 이 같은 운송량 증가 현황을 토대로 막심 시시코프(Maxim Shishkov) FESCO 그룹의 전략 및 개발 부문 책임자는 화물 운송량이 향후 몇 년 이내로는 두 자릿수로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동시에 지정학적 위험, 운송 수요, 중국 측의 자금, 대체 운송 노선의 운임 수준 등 러시아

안팎의 인프라 문제가 주요 장애물로 작용하여 성장이 둔화될 것으로 예측함

- 바체슬라프 사라예프(Vyacheslav Saraev) 러시아 철도청 사업 관련 자회사(Business Active) 총괄 이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역학적 상황의 제한은 지속적인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 판단하는 한편, 운송량 증가를 위해 국경통과와 관련된 인프라 개발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데, 러시아 철도청 자회사는 2025년까지 화물 운송량을 현재 기준보다 10배 이상(55만 TEU)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힘
- 러시아 철도청 자회사인 트랜스컨테이너(TransContainer)는 화물 운송량의 증가를 위해서는 항만 및 국경검문소 지역까지의 접근을 위한 인프라 개발 및 인프라 현대화 등이 필수적이며, 특히 화물 터미널 기반 시설 개발, 새로운 운송물류센터(TLC) 설립, 확실한 장기 관세 조정 규제 도입, 운송 컨테이너 검사 폐지, 철도 운송 행정 업무 관련 협력 등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세르게이 압세이코프(Sergey Avseykov) 유라시아철도화물운송업자연합 이사는 철도 컨테이너 운송 시장이 향후 5~6년 간 매년 20% 이상 성장세를 보이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치라고 예측함
- 컨테이너 시장 전문가에 따르면, 현재 운송량의 5~6%가 물동량에 합산되지 않는 공컨테이너이며, 25%가 중앙아시아 물품 공급과 관련한 운송이므로 계획된 성장치 달성은 불가능해 보인다고 예상함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김혜영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gpdud027@hufs.ac.kr)

---

#### 참고자료

a) <https://www.kommersant.ru/doc/5183632> (2022.2.15. 검색)

# 러시아, 지능형 교통체계(ITS) 확대 도입<sup>a)</sup>

## ■ ITS 도입에 2022년 정부 예산 73억 5천만 루블 할당

- 러시아 정부는 최근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를 전국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러시아 내 42개 지역과 설치 계약을 체결하였음
- 앞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교통수단의 움직임이 온라인으로 즉각 표시되고, 모든 지역 내 혹은 지역 간 경로가 시스템에 포함되어 내륙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예정임
  - \* 지능형 교통체계(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는 교통수단, 교통시설(자동차, 도로 등)에 4차 산업혁명 주요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교통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흐름 개선과 교통 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차세대 교통체계임
- 우드무르트 공화국(Udmurt Republic)에는 대중교통 이동을 통제를 위한 공개형 지역 네비게이션 정보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임
- 러시아 서쪽에 위치한 키로프(Kirov) 시에서는 차량 흐름을 분석하기 위해 감지기를 도입하여 교차로를 건너기 위한 최적의 방식을 보장하고,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는 신호등 현대화 작업이 이뤄질 예정임
- 아울러, 키로프(Kirov)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50대 이상의 전자 교통 관제 기계를 현대화할 계획인데, △대기 오염에 대한 신속한 정보 수집을 위한 환경 센서 설치, △ 운전자가 최적의 경로를 선택해 교통 체증을 피할 수 있도록 주(州) 초입에 안내판 설치, △기상 조건, 제한 속도, 교통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게시하기 위한 정보 전광판 설치, △ 시내에 375개 이상의 CCTV 설치, △교통 통제 센터 설치 등이 계획되어 있음

## ■ ITS 도입, 러시아 정부 국가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시행

- ITS 도입 작업은 2019년부터 시행된 러시아 국가 프로젝트인 ‘안전한 고품질 도로’의 하나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국가 프로젝트에는 ‘도로 부문 개발을 위한 공통시스템 조치’, ‘도로망’, ‘도로 안전’, ‘러시아 국방부 전용 자동차 도로’의 4가지 연방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음
- 이 작업은 인구 30만 이상의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지난 1년 동안 러시아 연방 정부의 지원을 통해 러시아 내 24개 지역에 15개의 교통관제 센터, 1,350개의 교통 흐름 감지기, 630개의 CCTV, 460개의 스마트 신호등 및 70개의 스마트 정류장과 45개의 기상 관측소가 통합·설치되었음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김혜영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gpdud027@hufs.ac.kr)

---

#### 참고자료

a) <https://tass.ru/ekonomika/13629581> (2022.2.15. 검색)

## 카자흐스탄-중국, 육로 운송 문제 장기화<sup>a)</sup>

###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카자흐스탄~중국 육로 운송 제한 발생

- 카자흐스탄과 중국 간 주요 화물은 주로 광물, 농산물, 건축 자재, 공업 장비 원자재 운반 등의 품목 위주로 철도 운송을 통해 운반되며, 카자흐스탄은 일반적으로 철도를 통해 수출하고 육로 운송을 통해 상품을 수입하고 있음
- 그러나, 대표적인 카자흐스탄~중국 간 철도 운송 루트인 중국 서부~서유럽 운송 회랑(철도)을 통한 카자흐스탄 경유 유럽행 화물 운송 루트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시작된 이후 운송 제한을 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그림. 중국과 국경을 맞댄 카자흐스탄 '호르고스(Khorgos)' 경유 중국 서부~서유럽 철도 운송 회랑



자료: <http://www.economyinsight.co.kr/news/quickViewArticleView.html?idxno=3687>

### ■ 중국의 방역 조치로 철도·차량 등 카자흐~중국 국경 통과 마비

- 중국은 2021년 6월 경부터 철도를 통한 카자흐스탄의 대 중국 수입을 제한해왔으며,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방역 강화를 위해 2020년 말부터 카자흐~중국 간 콩, 보리와 같은 곡물 통관을 전면 중단하는 등 엄격한 방역조치 강화 및 제한을 가하고 있는 상황임



- 이로 인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이전인 2018~2019년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도스틱(Dostyk) 국경지역에서는 일 평균 100~150대의 차량이 통과되었으나 현재는 5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 시기 대비 20~30배 넘게 차량 통과량이 하락하였음
-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현재 9,000대 이상의 화물철도 컨테이너가 중국 영내에 보관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장기 기간이 6개월이 지난 것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아타메켄(Atameken) 카자흐스탄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카자흐~중국 간 5개의 국경검문소 중 3개의 검문소인 도스틱, 누르줄리(Nurzholy), 바흐티(Bakhty)만이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나머지 2개 지점인 마이캅차가이(Maykapchagay)와 칼자트(Kalzhath)는 계속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닫혀있는 상황임
- 현재 지속적으로 양국간 이동 화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경검문소의 제한적 운영은 화물운송 지연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대외 수출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특히, 카자흐스탄의 중국 경유 한국 및 일본발 수입 물품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카자흐스탄발 중국행 수출도 지연되고 있음
- 그러나, 카자흐스탄 경유 중국발 유럽행 화물의 경우 카자흐~중국 국경을 문제 없이 통과하고 있으며 통과 지연의 경우 카자흐스탄행 및 카자흐스탄발 중국행 화물에 집중 적용되는 바,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설명은 없는 상황임

## ■ 카작 정부, 카자흐-중국 간 물류 상황 개선에 적극 나서

- 카자흐스탄 상공회의소는 현재의 카자흐~중국 육상·철도 운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 중인데, 중국산 상품을 수입하는 카자흐스탄 업체 대상 ‘불가항력 사실 인증서’를 약 250개 발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카자흐 기업들이 현재 직면한 상품 공급 계약 관련 손해배상 문제 등 발생할 수 있는 약 29억 탱게 (약 700만 달러) 규모의 금전적 불이익을 보호할 수 있었음
- \* ‘불가항력 사실 인증서’란 코로나19로 인해 빚어진 현 물류 상황으로 인해 발생할 불가피한 계약 불이행 책임에서 카자흐스탄 기업이 면책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인증서 발급 제도
- 그러나 이 같은 지원은 충분하지 않아, 현재 국경지대에 정차되어 있는 9,000개 컨테이너와 컨테이너와 관련된 카자흐스탄 120개 이상 기업의 목록을 작성하여 카자흐스탄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이며, 이 같은 내용은 중국 측 외교채널에도 전달되었음
- 카자흐 측의 이같은 노력으로 인해 현재는 3개월 이상 중국에 머무르던 카자흐스탄 철도가

되돌아오는 등 상황이 개선되고 있으나, 7~8개월 이상 장치된 컨테이너 및 철도 화차의 수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무라트 암린(Murat Amrin) 아타메켄(Atameken) 카자흐스탄 상공회의소 대표는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 양국 정상급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함

- 티무르 자르케노프(Timur Zarkenov) 이스케르멘(Iskermen) 기업가 연합 대표는 카자흐스탄 기업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기업 대표, 산업 협의회 대표 등이 모여 현재와 같은 화물 흐름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실무 그룹 형성을 제안함
- 카자흐스탄이 중국에 원자재를 수출하는 반면, 장비, 기계, 의약품 등의 완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오며 수출입 품목 불균형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물류 위기로 인해 카자흐스탄 기업에는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며, 향후 카자흐 및 중국 정부 간 관련 협의가 이루어질지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음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

#### 참고자료

- a) <https://informburo.kz/stati/devyat-tisyach-kazaxstanskih-vagonov-zastryali-v-kitae-problemy-na-xorgose-resayut-v-rucnom-rezime>(2022.2.16. 검색)
- b) <https://informburo.kz/stati/ubytki-na-milliardy-tysyaci-vagonov-s-gruzom-prostaivayut-na-granice-s-kitaem>(2022.2.16. 검색)



# 중국과 북한, 화물열차를 통한 무역 재개

그림. 신의주와 단둥을 잇는 조중우의교에서 북한화물열차가 통과하는 모습



자료: <https://www.globaltimes.cn/page/202201/1246205.shtml>

## ■ 중국과 북한, 1월부터 철도화물을 이용한 무역 재개

-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Zhao Lijian) 대변인은 1월 11일, 코로나 19로 한동안 중단됐던 중국과 북한 간의 단둥-신의주 철도 화물 수송이 재개됐다고 밝힘
- 자오리젠(Zhao Lijian)은 전염병 예방과 안전을 기반으로 양국 간 정상적인 무역을 촉진할 것이며 이는 평양의 필수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라고 하였으나 중국 전문가와 해외 기업인들은 차후 북·중 무역 재개가 될 것으로 전망
- 이번 열차에는 식염수, 포도당 등의 생필품과 의료용품이 실려 북한으로 돌아갔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 중국과 북한 사이의 철도 화물 운송은 코로나19 발병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중국의 춘절 연휴(1.31~2.6) 이후 정규적인 거래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

## ■ 북·중 무역감소에도 룡커우 항~남포항 간 화물 급증

- 중국의 세관당국인 해관총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중국과 북한 간의 무역액은 3

억 1804만 달러로 2020년에 비해 41% 감소한 수준이며, 2019년 북·중 무역액과 비교하면 88.6% 줄어든 수치

- 북·중 무역액을 부문별로 보면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2억 6165만 달러로, 2020년 대비 47% 줄어든 반면,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5787만 달러로 전년 대비 20.7% 증가했으나 매우 낮은 수준
- 2021년 북·중 교역은 주로 육로가 아닌 해상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38 노스(38NORTH)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 1월 말까지 북한 남포항을 중심으로 물류 활동이 활발해지는 움직임을 위성사진으로 포착하였다고 밝힘
- 위성사진 상 남포항에는 컨테이너가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남포항 컨테이너 움직임은 2021년 4월부터 포착되었으며 불분명하지만, 방역을 위해 수입품을 격리구역에 따로 보관하는 것으로 추정
- 북한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국경 문을 닫아걸었지만, 남포항을 통한 해상운송을 완전히 막지는 않았음. 남포항 물류 흐름은 2020년 초반 서서히 감소한 뒤 2021년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태임
- 중국 산둥성 룡커우(龍口)항 등에서 북한 남포를 오가는 소형 선박에 의해 중국 물품에 남포항에 하역 후 통관과 방역·격리에 수십 일이 걸리는 것으로 전해짐
- 일각에서는 화물열차를 이용해 단둥-신의주로 오가는 화물열차 물품 중 일부가 남포항을 이용할 예정이었지만 남포항이 포화 상태에 달해 운송경로를 바꿨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음

채수란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9orchid7@kmi.re.kr/051-797-4790)

#### 참고자료

- a)<https://www.globaltimes.cn/page/202201/1246205.shtml> (2022.2.16. 검색)
- b)<https://www.reuters.com/world/china/nkorea-train-makes-rare-arrival-china-during-border-lockdown-yonhap-2022-01-16/> (2022.2.16. 검색)
- c)<https://www.38north.org/2022/02/nampho-port-ramps-up-activity/> (2022.2.16. 검색)

## 국제기구·비정부기구, 북한 인도지원 무산

그림.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세계식량계획(WFP) 본부



자료: <https://www.voakorea.com/a/6443117.html>

### ■ 대북제재 면제 승인 자원품목, 북한 호응 없어 속속 만료

- 유엔이 대북 지원 품목을 제재 면제 대상으로 잇따라 지정해도 북한의 호응을 얻지 못한 채 제재 면제 기간이 속속 만료함에 따라 지원 단체들은 북한의 수용만을 기대하며, 거듭 면제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악순환이 반복됨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인도지원을 목적으로 제재 면제 승인을 받은 국제기구와 비정부기구의 대북 사업은 모두 23건임
- 자동차 두 대와 엔진 부품 지원하는 유엔인구기금(UNFPA), 위생과 깨끗한 식수 제공 사업을 계획하는 유엔아동기금(UNICEF), 북한 내 영양실조와 식량 문제에 대응하는 세계식량계획(WFP) 등과 같은 단체는 북한 당국의 국경 봉쇄 조치와 운송 어려움으로 기간 내에 물자를 북한에 반입하지 못하자 면제 기간 연장을 신청함
- 이들 단체는 북한 내 식량난과 의료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도주의적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고 국제적 구호 제안을 거부해 원조 전달에 심각한 장벽이 있다고 지적함
- 북한은 지난 1월부터 단둥-신의주를 오가는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며 무역 봉쇄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국제적 구호 제안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 중임
- 그동안 유엔의 제재 면제를 받고도 북한의 국경 봉쇄로 북한에 전달되지 못한 물품은 신종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의료기구부터 응급 분만과 신생아 치료에 필요한 인큐베이터, 백신 보관 냉장고, 치아스캔 장비, 병원 건립에 필요한 건축 자재, 농기구, 자동차 등 매우 다양함

- 유엔인구기금의 경우 현지 직원들의 업무 지원 등을 위한 7인승 도요타 자동차 2대와 부품, 정비용품 등에 대한 유엔 제재 면제 승인을 받았으나 북한이 국경을 전면 봉쇄하자 현재까지 세 차례 면제 재신청을 한 상황임

## ■ COVAX는 북한에 백신이 전달되지 않아 할당량 줄어

- 국제백신구매단체 COVAX는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공유 프로그램(코백스 퍼실리티)이 북한에 지원하기 위해 북한에 할당된 접종 물량은 811만 도스를 154만 도스로 축소했다고 밝힘
- 로이터는 한국의 싱크탱크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해 COVAX 산하 조직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출하 계획을 부작용 우려로 거부했다고 설명함
- 유니세프에 따르면 지난해 평양은 중국의 시노백 바이오텍의 코로나 19 백신 300만 도즈 제안도 거절했다고 언급함
- 북한은 최근 열린 최고인민회의(2.6~2.7)에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예산 항목은 지난해보다 33.3% 늘렸지만 국제사회의 구호 및 지원을 모두 거부하고 있는 상황임

채수란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9orchid7@kmi.re.kr/051-797-4790)

## 참고자료

- a) <https://www.voakorea.com/a/6433152.html>(2022.2.16. 검색)
- b) <https://www.voakorea.com/a/6443117.html>(2022.2.16. 검색)
- c)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covax-cuts-nkoreas-covid-vaccine-allotment-after-no-deliveries-accepted-2022-02-10/>(2022.2.16. 검색)



## 주요 통계



표. 2021년 12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화물 및 액체화물)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20/2021 증감율
극동지역	11.2 (+1.4%)	6.9 (-1.0%)	18.1	+0.6%
북극해	2.2 (-3.8%)	5.5(-1.0%)	7.7	-1.9%
발트해	10.1 (+4.8%)	12.2 (+4.6%)	22.3	+4.7%
아조프-흑해	10 (+2.4%)	12.9 (+1.4%)	23.0	+1.9%
카스피해	0.2 (-22.3%)	0.3 (-8.0%)	0.5	-14.0%
합계	33.7(+2%)	37.8(+1.5%)	71.5	+1.7%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베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 주: 누적 물동량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 참고자료

a) <https://portnews.ru/news/322590/>(2022.2.9. 검색)

b) <https://portnews.ru/news/323885/>(2022.2.9. 검색)

표. 2021년 11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01-24	식료품 및 원자재	488,113.1	58,574.3	2,160.9	3,514.4	490,274	62,088.7
25-27	광물 제품	631,154.4	24,174.4	40,838	53,606.2	671,992.3	77,780.5
27	연료 및 에너지 제품	497,367.4	20,609.1	511	0.1	497,878.4	20,609.2
28-40	생고무 화학 제품	4,374	79,626.6	1,178.4	870.8	5,552.4	80,497.6
41-43	가죽원료모 피 제품	8.6	2,080.9	9.1	200.9	17.7	2,281.8
44-49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90,615	10,273.9	415	269.5	91,030	10,543.4
50-67	섬유, 섬유제 품 및 신발	399.6	48,443.3	65.7	1,446.8	465.2	49,890.1
72-83	금속 및 금속 제품	56,410.9	80,556.7	2,000.8	5,604.8	58,411.6	86,161.4
84-90	기계류	112,094.9	564,415.5	6,905.6	6,888.9	119,000.5	571,304.3
68-71, 91-97	기타	313,063.1	63,036.7	47,434.9	498.9	360,498	63,535.7
	합계	1,696,233.6	931,182.4	101,008.4	72,901.3	1,797,241.9	1,004,083.7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2.2.9. 검색\)](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2.2.9. 검색))



표. 2021년 11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단위: 톤,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0302	냉장수산물	0	0	-	-	-	-	-	-	0	0	-	-
0303	냉동수산물	98,846	233,521.7	1,005	3,244.7	19	24.2	-	-	98,865	233,545.9	1,005	3,244.7
03031	연어	11,304	48,018	-	-	0	0	-	-	11,304	48,018	-	-
030331	광어	541	4,466.6	-	-	-	-	-	-	541	4,466.6	-	-
030332	가자미	677	600.6	-	-	0	0	-	-	677	600.6	-	-
030339	기타 넙치류	619	493.2	-	-	0	0	-	-	619	493.2	-	-
030351	청어	12,992	3,628.8	-	-	0	0	-	-	12,992	3,628.8	-	-
030363	대구	5,426	17,870.4	-	-	0	0	-	-	5,426	17,870.4	-	-
03036 70000	명태	45,483	48,269	-	-	19	24.2	-	-	45,502	48,293.2	-	-
03038 93	농어	0	0	-	-	-	-	-	-	0	0	-	-
030391	알류	3,548	97,869.6	-	-	0	0	-	-	3,548	97,869.6	-	-
030399	지느러미, 머리, 꼬리 및 기타 식용 어패류	531	986.9	-	-	-	-	-	-	531	986.9	-	-
0304	생선 필레	3,720	11,982.8	48	189	0	0	-	-	3,720	11,982.9	48	189

0305	훈제 생선, 생선 가루	0.2	1.9	46	274	-	-	-	-	0.2	1.9	46	274
0306	갑각류	5,696	198,497.2	79	575.8	-	-	-	-	5,696	198,497.2	79	575.8
030614, 030633, 030693	게	5,244	190,837.8	-	-	-	-	-	-	5,244	190,837.8	-	-
0307	조개류	4,768	14,594.5	-	-	0	2	-	-	4,768	14,596.6	-	-
03072	가리비	271	496.4	-	-	-	-	-	-	271	496.4	-	-
03074, 03075	오징어 및 문어	4,041.4	11,028.2	82	441.9	0	0	-	-	4,041.4	11,028.2	82	441.9
0308	수생 무척추 동물*	1,667	4,167.9	-	-	-	-	-	-	1,667	4,167.9	-	-
03081	해삼	487	1,227.9	-	-	-	-	-	-	487	1,227.9	-	-
03082	성게	993	2,891.7	-	-	-	-	-	-	993	2,891.7	-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2.2.9. 검색\)](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2.2.9. 검색))